

이디야커피, 전통음료 '살얼음 식혜' 출시

이디야커피가 16일 전통 음료 라인업 확대 일환으로 '살얼음 식혜'를 선보였다. 쌀과 엿기름 등 100% 국내산 원료를 활용해 전통방식으로 제작했다. 부드러운 밥알의 당백함과 은은한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식혜에 살얼음을 띄워 시원한 맛을 강조했다. 또 '한라봉 살얼음 식혜'는 살얼음 식혜에 한라봉을 더해 새콤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정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재건축 규제 풀고 5년 동안 270만호 공급

수요 많은 지역에 많은 주택 공급 수도권 158만호·비수도권 112만호 재건축 부담금 감면 대책 발표 예정 도심복합사업도 민간 유형 신설 청년주택, 시세 70% 이하에 공급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 물량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50%인 재건축 구조안정성(건물기울기, 내구력 등) 비중을 30~40%가량으로 낮추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민간도심복합사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청년 주거지원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건축 구조안정성 비중 최대 30%로!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주택은 270만호다. 무엇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늘어난 50만호를 공급한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정부는 5년 동안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도심과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에 158만호가 공급된다.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52만호를 공급한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지난 5년보다 11만호 늘어난 52만호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선 24만호 많은 88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정비 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에 지정할 계획이다.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주택 공급의

중요 수단인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먼저 재건축 사업 걸림돌로 작용해 온 '재건축 부담금 감면 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 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50%인 구조안정성 비중을 30~40%수준으로 낮춰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 사업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민간 도심

복합사업' 유형도 신설한다. 신박사와 리츠 등 민간 기관이 도심, 부도심, 노후 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청년원가 주택 공급도

정부는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우선 내년까지 15만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굴하기로 했다.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GTX-A 조기 개통과 B·C노선 조기 착공 등을 실행하고,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하는 등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청년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내달 브랜드를 통합해 추진한다. 공공택지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공공유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50만호 내외의 공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세부 방안은 내달 공개 예정이다.

한편, 반지하와 고시원 등 해해취약주택에 대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SKT, '이니셜' 통해 모바일 학생증 서비스



SK텔레콤은 블록체인 기반 DID(분산식별자) 서비스 '이니셜'에 디지털혁신공유대학 모바일 학생증 서비스(사진)를 시작했다. 디지털혁신공유대학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이니셜 앱으로 모바일 학생증을 발급 받아 별도 아이디 및 패스워드 없이 디지털혁신공유대학 포털 및 각 참여대학의 온라인 행정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디지털혁신공유대학은 대학·학과별로 고정된 정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46개 대학이 참여한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각각 참여 대학의 온라인 행정 시스템이 상이해 다른 대학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임시 학번을 발급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 학생증을 발급받고 이니셜 앱의 DID 로그인 기능으로 QR코드만 스캔하면 간단하게 접속할 수 있게 됐다.

김명근 기자

아이더, 아이브 장원영 새 모델 발탁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 아이더가 걸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사진)을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발탁했다. 이번 시즌 아이더는 새 모델 장원영과 함께 젊은 세대의 소통 강화에 집중한다. 스타일이 돋보이는 아

우터부터 눈길을 끄는 컬래보레이션 제품까지 장원영만의 독보적인 개성을 살려 '요즘 아웃도어'의 색다른 면모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이더 마케팅은 "아이더의 젊고 트렌디한 '요즘 아웃도어' 스타일을 멋스럽게 소화하며 젊은 층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MZ세대 대표 아이콘 장원영을 이번 시즌 브랜드 새 모델로 발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기아 EV6, ID.5보다 매력"…현대차그룹 'E-GMP' 전기차, 유럽서 호평

(독일 전문매체 '아웃도 빌트')

비교평가서 총 577점으로 ID.5 제쳐 가속성능·충전·전비효율 등서 우위 E-GMP, 평가 기록서 경쟁사 압도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전기차들이 유럽 전문지 비교평가에서 연승 행진을 벌이고 있다.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웃도 빌트'는 최근 실시한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기아 'EV6'가 폭스바겐 'ID.5 GTX'보다 매력적인 전기차라고 평가했다. 현대차 아이오닉 5에 이어 기아 EV6까지 ID.5를 압도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의 우수성이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다.

이번 비교 평가는 EV6와 ID.5 GTX 2개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바디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 성능 ▲커넥티비티



기아 EV6(왼쪽)와 EV6에 적용된 E-GMP 플랫폼.

▲친환경성 ▲경제성 등 7가지 평가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EV6는 평가항목 중 ▲바디 ▲파워트레인 ▲주행 성능 ▲친환경성 ▲경제성 등 5개 항목에서 앞서며 총점 577점으로 570점을 받은 ID.5 GTX를 제쳤다.

특히 EV6는 전기차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파워트레인 항목 가운데 가속성능,

반응성, 충전, 전비 효율 등에서 우위를 점하며 7점차(103점)로 크게 앞섰다.

한편 지금까지 진행된 독일 3대 전문지의 전기차 비교평가에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플랫폼 E-GMP는 경쟁사 플랫폼을 압도하는 평가 결과를 기록 중이다. 앞서 아이오닉 5는 폭스바겐 ID.4 GTX와 ID.5를 비롯해 아우디 Q4 e-트론 등 폭스바



사진제공 | 기아

겐그룹의 전기차 플랫폼 MEB 기반의 전기차와의 비교 테스트에서 모두 승리했다.

제네시스 GV60 역시 지난 5월 아우도 빌트가 진행한 ID.5 GTX 및 볼보 C40 리차지와 비교평가에서 ID.5 GTX와 공동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대한항공, '저피탐 무인 편대기' 국내 첫 개발 나서

유·무인 복합체계 등 핵심기술 확보

대한항공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저피탐 무인편대기(사진) 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

저피탐(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기술) 무인 편대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한 국

방과학연구소의 '미래 도전 국방 기술과제'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처음 개발되는 기술이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상세설계를 담당한다. 대한항공은 저피탐 무인 편대기와 유인기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로 개발할 계획이다.



무인기 3~4대가 유인기 1대와 편대를 이루어 유인기를 지원 및 호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감시정찰,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인 자율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20여 년간 무인기 개발 사업으로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저피탐 무인기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 체계, 군집제어, 자율 임무수행 등 차세대 핵심기술을 확보해 국내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주도할 계획이다.

김재복 기자 oldfield@donga.com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셔주는 것이 좋다. 신장에 자극을 주는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는 지양해야 한다. 음주 역시 마찬가지다.

신림 서울비뇨기과 관악점 전찬후 원장